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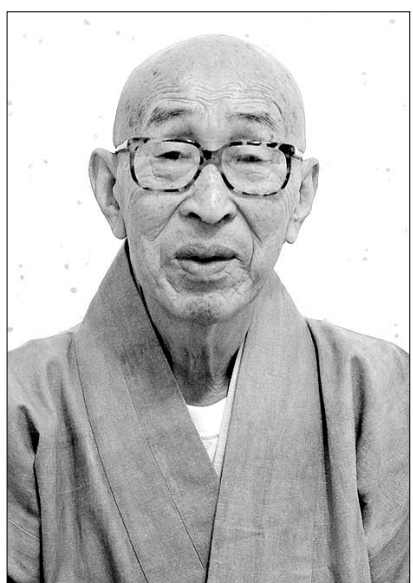
禪 수행가풍 잇고 참사람운동 지속

4월 20일 곡우절, 백양사 초창 이래 역대 조사전에 차를 공양하는 '다례식' 날로 고불총림(古佛叢林)의 명절이다. 이날 수산 지중(壽山 知中·83) 스님이 고불총림 3대 방장으로 추대되어 조사전에 예를 올렸다. 수산 스님은 민암·민공·인곡·고암·우화·서옹 스님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의 어른스님들을 모시고 안거 정진했던 이력에서 보여주듯 한 치 어긋남 없는 수행력을 보여 만장일치로 방장에 추대됐다. 이날 방장 추대식도 평소 드러나지 않는 스님 성품에 따라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문중스님들과 함께 하는 간소한 자리였다. 대웅전에서 열린 추대식에서 백양사 고불총림 가풍에 따라 200여 문중스님들이 방장을 상징하는 불자와 주장자를 봉정하고 법문을 청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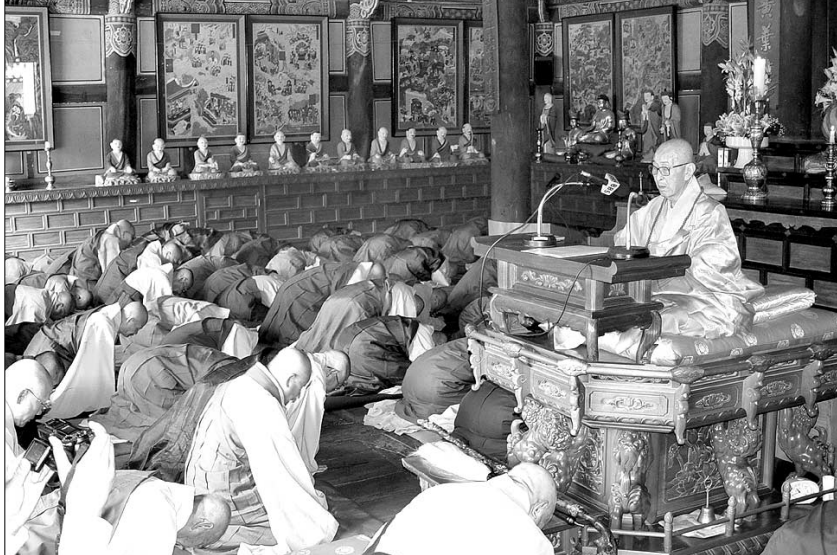
법자에 오른 수산 방장스님은
以佛見佛無異見(이불견불무이견) / 以法說法無別說(이법설법무별설)
佛法開見總現成(불법문견총현성) / 當陽直下全超越(당양직하전초월)
(부처가 부처를 보니 달리 볼 것이 없고 / 법으로서 법을 설하니 달리 설할 것이 없다 / 불법을 듣고 보니 모두가 드러나 이루어졌으니 / 마땅히 밝아서 곧바로 전체를 뛰어넘는다)
라고 법어를 내리고 '약' 하며 크게 활을 한 후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법좌에서 내려왔다.
방장스님 주석처인 설선당에서 고불총림의 가풍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 고불총림 방장 추대 수산 스님

▲고불총림 가풍은 무엇인지요?
-고불총림은 민암 대중사에서 해방후 식민지 불교청산, 민족정기 함양, 청정한 승종진작을 통해 종지종풍을 면면히 이어가게 하기 위해 1947년도에 처음 설립했습니다.
백양사는 예부터 엄격한 수행가풍으로 도인이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한마디로 청정한 승풍을 토대로한 '조사선 수행가풍'입니다. 수행을 위한 수행이 아닌, 평상시 생활속에서 참사람을 구현해 내는 일상생활속의 선 수행가풍입니다. 증생교화속의 선수행, 가람수호와 중무행정속의 선수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생과 괴리된 수행은 수행만을 위한 수행으로서 소승이라고 합니다. 증생교화와 함께하는 수행이야말로 대승이요 부처님의 참 뜻이요, 참사람운동의 본래취지이며, 백양사의 가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3대 방장 수산 지중 스님.



4월 20일 백양사에서 열린 고불총림 방장 추대식. 200여 문중스님들이 방장을 상징하는 불자와 주장자를 수산 스님에게 봉정하고 법문을 들었다.

참사랑 수련회 활성화
▲향후 총림운영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 총림 운영은 방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불총림 백양사의 전체 문도들이 민암 대중사와 서옹 대중사의 수행가풍과 유지를 받들어서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일심 화합하고 애사심을 가지면서 조사선수행 가풍을 면면히 이어가서 참사람 운동을 구현해 내므로써 증생제도에 매진하여야 부처님과 증생의 은혜를 갚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불총림은 총림운영위원회에서 총림전체 문도들의 총의를 모아서 백양사의 가풍을 재확인하고 참사람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서옹 스님의 열반은 수행자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서옹스님이 평생 주장하셨던 '참사랑 운동'은 무엇인지요?
- 참사랑 운동은 서옹대중사에서 조사선의 참뜻을 현대 물질문명사회를 구제하고 거기에 묶든 현대인들을 제도하는 유익한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주창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갈수록 물질문명의 노예가 되어가고 정신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들과 병든 사회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참사랑 회복이

라는 처방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사랑 운동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우리 백양사 문도들부터, 그리고 가까운 불자들부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가 민암 스님을 모시면서 배워 여러가지 불교의식(복장 의식, 집안 의식, 전통다례 의식, 생전예수제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요즘 출가승들이 너무나 불교의식을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행하는데 의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식과 의례속에서 풀어지고 나타내지고 방종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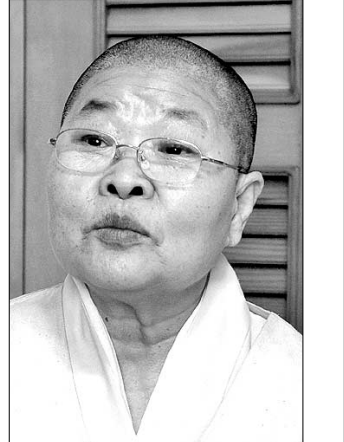
염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 산실로 관내 주요지역마다 포교당 세울터

음을 다잡아나가고, 그 의식 가운데서 수행과 공부가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의식을 없애버리면 그 종교는 방종의 종교, 막가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예부터 불교의식을 잘 지키고, 예불의식이 강중하고 장엄하기로 이름 나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면모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불교전통의식을 잘 지켜가는 도량으로서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 한 방법으로서 염불원을 제대로 갖춰, 불교전통의식 교육원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 <13> 지환 스님

禪 대중화의 '작은 거인'

군산은 인구 26만명에 교회가 400여 개로 세계에서 인구 밀도에 비해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이다. 이곳 군산에서 48년째 부처님 가르침을 좇아 정진하며 포교하는 비구니가 있다. 군산의 심장부 월명공원 입구에 자리한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僧環·70). 불교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법회 때면 300여 명의 신도가 모이니, 스님의 행장이 바로 '한국의 비구니를 대변한다' 하겠다.



스님은 12세 나이로 전주 정혜사로 출가했다. "어찌 그렇게 중노릇을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중이 된다는 생각에 심지어 세 개를 꼬아 만든 연비가 지글지글 타는데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계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공부 잘할 것이다'고 하시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는 것이 스님의 확고한 신념이다. 스님은 출·재가를 초월해 모두가 '불법'으로 살 것을 발원한다. 1981년 어려움 살림에 반야선원을 건립했다. 30평 규모의 선원에는 전국의 비구니가 찾아와 정진했다. 안거 때는 재가불자도 함께 했다. 50대 이상 비구니 수좌 가운데 흥

천사 반야선원을 거쳐가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좋은 수행처였다. 아쉽게도 스님은 50년 넘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은 커다란 연비자국을 보여주며 "아직 그때 신심 그대로입니다"며 미소짓는다. 정혜사 강원엔 대강주 보광스님이 계셨다. 그때의 강원은 외로운 것이 우선이었다. 치문, 서장, 도서 등 사직과정을 출출 외웠다. 강원에서 한창 신심나서 공부하던 당시 군산의 불자들이 강원으로 포교사 파견을 요청했다. 졸업을 앞둔 지환 스님이 월 1회씩 법문차 군산을 찾았다. 강원 졸업 후에는 신도들의 요청으로 아예 현 흥천사 전신인 흥의사에 여장을 풀었다.

천사 반야선원은 거쳐가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좋은 수행처였다. 아쉽게도 스님은 50년 넘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은 커다란 연비자국을 보여주며 "아직 그때 신심 그대로입니다"며 미소짓는다. 정혜사 강원엔 대강주 보광스님이 계셨다. 그때의 강원은 외로운 것이 우선이었다. 치문, 서장, 도서 등 사직과정을 출출 외웠다. 강원에서 한창 신심나서 공부하던 당시 군산의 불자들이 강원으로 포교사 파견을 요청했다. 졸업을 앞둔 지환 스님이 월 1회씩 법문차 군산을 찾았다. 강원 졸업 후에는 신도들의 요청으로 아예 현 흥천사 전신인 흥의사에 여장을 풀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탁발해 놓은 공양물이 사라지고, 심지어 땀들의 신발마저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신도들과 쓸 1되로 사흘씩 죽을 쑤어 먹으며 대중 포교에 나섰다. "신도를 교육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20여년 함께 공부하다보니 자리가 잡히고 제법 사려도 갖췄습니다." 스님의 화두는 오직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는 것'이다. 아무리 타종교가 득세해도 수행자로서 떳떳하게 살면 안될 것 같다

초파일 전날 흥천사가 단독으로 시내에서 펼치던 전야제는 사암연합회 주관의 제등행렬로 발전했다. 월명공원 노인들에게 하던 무료급식은 군산역 앞으로 장소를 옮겨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이렇듯 흥천사에는 유아에서 청·장년은 물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흥천사 주지 범희 스님이 "안으로는 참정정진하고, 밖으로는 주력과 포교로 일관할 뿐 한눈팔지 않으셨다"며 은사 지환 스님에 대해 한마디 거둔다. 군산=이준엽 기자

천년고찰 약사도량 구파발 흥국사 (북한산 입구)
산사 건강 음악회
○일시: 2004년 5월 9일 (일) 오후 1시부터

◆1부: 경묘잔치(오전 11시 ~ 오후 1시)
◆2부: 산사 건강음악회(오후 1시부터~)

●사회: 김병조

●출연진:
설운도 (다짐계 자자자)
안지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와 (핀소리 명창)
정물스님 (진불기의 명인)
김태근 (송학사, 망부석)
홍화자 (손예소집고)
외 흥국사 보현합창단

찾아오시는길
구파발 전철역(1번 출구)에서 156번(서울역-북한산성-송추행), 34번(불광동-의정부행) 버스를 타고 흥국사 앞 차차, 도보 10분거리(구파발-흥국사 4km)

대한불교조계종 약사기도도량 천년고찰 구파발 흥국사 주지 대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족동 203 전화 02)381-7970 www.heungguksa.or.kr

경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인천불교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심속의 산사「경인불교대학」으로 오십시오.

강의 내용
예불문, 사찰예절, 부처님의 생애, 찬불가, 불교기초교리, 반야심경, 정토사상, 선사상, 다도강좌, 참선실수, 불교와 사회복지

주요 강좌 교수진

과 목	교수진	비 고
불교기초교리	차차석교수	동국대 교수
선사상	법산 큰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정토사상	정엄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반야심경	중연 스님	경인불교대 학장
불교와 사회복지	보각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제출서류: 입학원서(반영암판 사진 2매) ◆등록금: 입학금 - 일만원 / 수강료 - 삼만원(4개월)
◆모집기간: 2004년 4월 24일부터 200명 선착순(주간/야간)
◆개강일시: 2004년 6월 21일(오전10시) ◆학력 및 연령 제한없음

특전: 졸업 후 조계종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대한불교 조계종 승학산 수미정사(인천향교뒷산)
경인 불교 대학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252-3 • 접수처: TEL 032)427-8400 / FAX 032)422-8401